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양윤정2	1교구	마리아	본인	여태환	1교구	중등부	양윤정2
여민호	1교구	엘리아	양윤정2	박시원	3교구	유년부	정춘혜

교회소식

◆ 모임

1. 새가족 환영회 / 17일(주일) 2부 예배 후 802호
2. 교구 총회 / 17일(주일) 오후 3부 예배 후 본당
3. 스테반 총회 / 17일(주일) 오후 3부 예배 후 502호
4. 권사 총회 / 17일(주일) 오후 3부 예배 후 101호
5. 에스더전도회 월례회 / 20일(수) 수요일 1예배 후 802호
6. 에스더전도회 2024 임직원 모임 / 21일(목) 오후 12시 603호

◆ 결 혼

1. 김선혁 군(8교구 김명중 성도, 강명신 권사의 차남) 신다솔 양(신문식 집사, 손혜주 권사의 장녀) / 12월 23일(토) 오후 5시 30분 엘리에나 호텔 5층 그레이스홀(02-3443-5670)

◆ 장례

1. 故 김덕하 님(2교구 김영표 안수집사의 부친, 권소희 권사의 시부) / 12월 14일(목) 별세, 12월 17일 발인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9시-17시30분	403호	유아부	11시-12시10분	706호
유치부	11시-12시10분	702호	유년부	11시-12시10분	701호
초등부	11시-12시10분	601호	중등부	9시-10시	501호
고등부	9시-10시20분	101호	청년부	15시30분-17시	601호
신혼가정부	12시30분-14시	606호	사랑부	10시30분-11시30분	603호
영어성경부	10시10분-11시	802호	소망부	10시10분-11시	102호
신앙강좌부	12시15분-12시55분	802호	새가족부	10시10분-14시	602호
세례교육부	12시10분	609호			

부 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중국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전진석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토,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영일(군선교)

우리의 비전 (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위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구유에 누우신 예수 ”

■ 누가복음 2:1-14

이 세상에 오신 구주 예수님은 그 모습이 초라하다 못해 슬프고 안타깝게 보입니다.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눕혔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함께 묵상하며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1. 고난의 땅에 오시다

1, 2절에는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 시절, 구레뇨가 총독이었던 시기라고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밝혀줍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BC31-AD14까지 재위한 로마의 첫 황제였습니다. 그의 시대를 일컬어 Pax Romana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의 권력이 천하를 지배하던 시절이었고 감히 저항할 세력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이방의 군사력이 성지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굴종을 강요하며 야만인 취급을 하던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며 악한 종교와 군사력과 억압과 수탈로 가나안의 백성들을 숨 쉴 수 없게 만들었던 그 시기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 1:5에 주님의 성탄을 ‘빛이 어둠에 비취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요 창조주가 피조물 되신 역사이며 무한하신 분이 인간의 한계 속으로 사람 되어 오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인간 역사가 가장 큰 고난을 겪던 시절 세상을 구원하실 생명의 말씀이며 구원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2. 베들레헨 구유에 나시다

호적령에 따라 요셉은 그의 약혼자 마리아와 함께 고향 베들레헨으로 떠났습니다. 베들레헨은 다윗의 고향 마을이었습니다. 미 5:2에는 장차 메시아가 탄생하실 고향으로 예언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시골의 한 촌락에 불과했습니다. 작은 마을에 호적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자 목을 곳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해산하고 ‘아기를 구유에 눕혔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메시아 생애의 성격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구유에 탄생하신 그는 일생 ‘머리 돌 곳도 없는 생애’(눅 9:58)를 사셨고 바울은 빌 2:8에 이 사실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라고 삽자기에 죽으심이라’고 하여 성탄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의 시작이었고 그 마지막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난과 멸시와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버려진 자들의 삶을 넉넉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버려지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도우시려 구유의 삶으로 세상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3.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베들레헨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탄생하신 사실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이기에’ 때문으로 천사는 소개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자의 성육신과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사가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인류 구원의 대망이 성취됨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씀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피조물들 사이의 모든 평화가 화목 제물 되시려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를 통해 성취될 것임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우리 죄가 사함 받게 된 소식이며 영생 얻게 된 소식입니다. 갈등과 전쟁과 억압으로 가득한 세상에 평화와 화해와 사랑의 새 역사가 시작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현실로 나타나도록 구체적 역사가 되게 하신 일이 성탄 역사입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 대림절 3 -

시 간	인 도	기 도	시 간	인 도	기 도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유충기 장로	III 오후 2시	현종필 목사	유충기 장로
II 오전 11시	장석남 목사	서은석 장로			

입례송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대상 16:28-29...	인 도 자	
예배로 부름	대상 16:28-29...	인 도 자			
기 원	인 도 자				
* 찬 송	14(1, 4절)...	다 함 께			
* 신앙고백		다 함 께			
* 성서 교육	117(구주 강림3)...	다 함 께			
* 송 영	4	다 함 께			
기 도	말 은 이				
찬 송	108...	다 함 께			
성경 봉독	눅 2:1-14...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다 함 께			
봉헌		다 함 께			
* 봉헌송	634...	다 함 께			
* 봉헌기도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다 함 께			
설 교	“구유에 누우신 예수”...	손달익 목사			
* 찬 송	112...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예배로 부름	대상 16:28-29...	인 도 자
			* 신앙고백		다 함 께
			* 경배와 찬양		찬 양 팀
			기 도		말 은 이
			환영과 축복		찬 양 팀
			교회 소식		인 도 자
			성경 봉독	눅 2:1-14...	말 은 이
			찬 양		찬 양 대
			설 교	“구유에 누우신 예수”...	손달익 목사
			결단의 기도		다 함 께
			봉 헌		다 함 께
			* 봉헌기도		설 교 자
			* 파 송		찬 양 팀
			* 축 도		설 교 자
			* 후 주		찬 양 팀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전지희	김진이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최유현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이주희	윤주일	3부 예배 신디시스트	이요한	
찬양예배	할렐루야	최유현	차주연	김양언		오늘 찬양예배는 성탄축하 찬양예배로 드리며 할렐루야찬양대(대장: 차도훈 장로, 지휘: 최유현 집사)가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수요 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특 별 찬 양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조현경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찬 양 예 배

- 성탄축하 찬양예배 -

시 간	인 도	기 도
오후 4시30분	김익환 목사	차도훈 장로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출 15:2	인 도 자
찬 송	38	다 함 께
기 도		말 은 이
찬 송	104	다 함 께
성 경	눅 3:1-6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주의 길을 준비하라”...	김익환 목사
특별찬양		할렐루야찬양대
* 찬 송	105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I 오전 11시	현종필 목사	안선희 권사
II 오후 7시	현종필 목사	위성남 권사

성 경	왕하 11:1-21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여호야다처럼”.....	손달익 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박수강·김복희2·신아령
설 교	손달익, 조원영 목사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찬 양	찬 양 팀
설 교	김익환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